

한경직 목사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교'

소천 10주기 추모세미나 개최

한경직 목사 소천 10주기 추모세미나가 지난달 28일 송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주대 이신영 교수의 사회,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임인식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1부는 한경직 목사의 선교사상과 국내 사역, 2부는 한경직 목사의 국외사역과 북한선교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신영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한경직 목사의 발자취를 배우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자"고 말했다.

한경직 목사와 선교사상을 주제로

로 첫 발제에 나선 박명우 박사(경민대, 에딘버러 신학교)는 "한경직 목사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선교'다"라고 정의하며 "그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이런 그의 하나님 중심성은 현대 선교신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선교의 양극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한경직 선교의 틀을 여러 가지 신학적 방향성으로 다듬기만 한다면 한경직의 신학은 한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학으로 거듭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강연 2에서는 '한경직 목사의 국내선교 사역'을 주제로 변창욱 교수(영신대)가 발제에 나서 "한경직 목사를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을 아우르는 통전적 신학의 실천자"라고 정의하며 농아선교, 산업선교, 군선교, 연합활동, 사회봉사 등 한경직 목사의

한기총,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신도시 개발지역내 교회문제 해결 모색



용산점사의 비극을 불러온 신도시·재개발사업방식에 고통 받는 주민들과 지역 내 교회들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재개발문제특별위원회(위원장 서경석 목사)는 지난달 30일(금) 오후 2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개발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30년 가까이 정부의 예산투자가 없게

발이막임으로 추진되어 세입자와 원주민 그리고 교회들이 주거지와 교회부지 등을 빼앗기는 식으로 진행된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재건축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는 하성규 부총장(중앙대)을 좌장으로 서경석 목사가 발제했으며 정창무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김한기 국장(영실련 도시개발센터) 박윤용 목사(안전교회 재개발지역 목회자) 강사건 장로(김포한강 신도시지역 사무) 정동만 장로(대농종합건설 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사)예총연 제5회 춘계수련회

'기도하고 승리하라 그리고 점령하라' 주제로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이사장 김경희 목사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우총련내사진 좌) 제5회 춘계수련회가 지난달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1박 2일간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열려 성령충만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더욱 말려진 일에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수련회 개최예배는 상임회장 황병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상임회장 김진형 목사의 기도, 총무 김경호 목사의 성경봉독, 글로리아찬양교회

의 특송, 대표회장 유영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삼하 8:1-8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총연 회원 모두가 항상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이어 회계 전승용 목사의 헌금기도,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한선교와 지구촌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예총연과 소속교단 및 단체를 위해' 이용배 목사, 신숙자 목사, 최용철 목사, 권용태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고분 노일수 목사의 축사, 사무총장 변정용 목사(위 내내사진)의 광고, 상임회장 김의용 목사의 축도로 개최예배를 모두 마쳤다.

'기도하고 승리하라 그리고 점령하라!' (삼하 8:1-8)라는 주제아래 열린 이번 수련회는 특강, 명랑운동회, 웃으면 복이 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박 2일간 목회일념으로 헌신해 온 사역자들이 재충전하고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불신자 전도가 한국교회 살 길"

한국 작은교회살리기운동 세미나

"불신자 전도로 성장해야 한국교회가 살고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고기가 많다. 신난다. 신난다." 한국 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박재열 목사)는 지난달 27일 동선교회에서 이렇게 외치며 세미나를 개최했다.

300여 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성전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의 오전 강의를 맡은 박재열 목사는 빌 1:27-30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자, 세상의 소금이 되자'를 주제로 강의했다.

박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녹아서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며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자기를 죽이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한국 작은교회살리기 세미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마지막 목요일에 열린다. 이날 그동안 전도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함께 평가하고 토론하며 개선책을 찾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한국 작은교회살리기 운동본부는 전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도정보 포털 사이트 '온갖닷컴'을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다. '온갖닷컴'에는 개척일기, 부흥사례, 전도 아이디어뱅크 등의 콘텐츠가 제공되며 다른 언론사와 제휴하여 교계소식도 전하게 된다.

기획실장 이창호 목사는 "온갖닷컴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전도에 대

"성경으로 돌아가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허용근 장로, 한지협 신임대표회장에 선출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권승달 목사, 이하 한지협)는

는 등 임원들을 개선하고 사업계획안 등 중요사무를 처리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한지협의 청렴취지에 따라 교회 경신과 일치를 통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단계로 만들어 가겠다. 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세계복음화의 선도적 역할도 감당하겠다" 허용근 장로는 신임회장으로서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 개최예배는 허용근 장로(공동회장)의 사회, 정영관 목사(중앙교회

원로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이어 권승달 장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정기총회에서는 대표회장의 인사 및 보고, 각부 보고, 총무 박종술 장로 외 4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어 전임회장단으로 구성된 전청위원회에서 신임회장에 허용근 장로를 선출하고 임원선출은 신임회장에 위임했다.

신임회장의 인사에 이어 신임회장의 주제로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신임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정기총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특별기고



선유도와 인사성

이원희 목사

"여하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시 145:3) 다윗의 감격의 일성이다.

하나님의 포용력은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한 쪽을 열심히 보아도 못 본 다른 측면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도 옥에 갇히고 핏빛고 굶주리는 지극히 작은 자 곁에 항상 있어주시고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나, 사업에 실패하여 울고 있으며 원치 않았던 이혼을 당하여 외로운 사람이나, 사별하여 고독한 사람들 곁에 언제나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치는 온전한 신 주님의 일면이시다.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자. 무지개의 칠색을 보거나 만개한 오색 꽃들을 보면 주님은 색상과 꽃들을 매우 좋아하시고, 손수 창조하여 놓으신 감격스러운 경치 절경을 보노라면 주님은 창작 예술의 대가이심에 놀란다. 간혹 산속 물소리 벌레소리 새소리의 조화를 듣노라면 주님은 음악의 대가이시다. 주님도 일출의 장관이나 일몰낙조의 황홀함을 연출하시는 멋진 주님이시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주님의 멋은 만점 쟁이시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갈릴리 바다 풍랑 설교를 하도 많이 하시기에 갈릴리 바다처럼 흥흥한 물결을 생각나게 하는 어두운 이미지가 각인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사역지 갈릴리 호수는 경관이 좋기로 낙원같이 아름다웠다. 강론서두에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 강론 장소를 가보니 정말 정말 산수가 수려한 곳을 주님이 골라 앉으셔서 산상수훈을 강론하셨다.

기왕이면 사실대로 금그릇 혹은 보석함속이라 불러주면 어디 덧나? 폼바 각색이들이 만지는 강동만 보아 와서 그렇지 언어도 자격 감당 문제이다.

이제는 자녀들 신혼여행을 태국이나 파리의 세느 강변 아니면 영국의 테임즈 강변으로 보내 신혼의 단꿈을 영글게 하는 데이트를 시킬 필요가 없었다. 신선이 놀다가고 임금님이 유람했던 곳, 견우와 직녀의 미팅 장소가 오작교였나? 고공 무지개다리로 된 선유도(仙遊島) 한 곳에서 선유도 팔경을 만끽 할 수 있는 외경이 풍부한 선유도 곧 임금님이 서고 앉은 곳 선유정(仙遊亭)이 있는 총화회관 옆 선유도로 보내도 되겠다.

기혼자도 사랑하는 아내와 혹은 연인이 버드나무 가지가 한강 바람에 나무끼고 북소리꽃 벚꽃 양 이상 물고기나 놓고 철쭉꽃이 도열한 산책길을 손 잡고 걷다가 선유도 변 한강에 낙산 같이 매어 단커피나 레스토랑에 들러 한강경치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건강회복은 물론이고 금살이 온기가 돌아오는 행운이 됨으로 보태질 것이다. 선유도에 있는 총화회관 신학생들 아름다운 인사성 어디에서 배운 예정일까? 언제나 허허 굽혀 깎듯한 예의 인사는 필자 같은 선배에게는 한 번 정도는 모르지만 선배 같은 그런 고운 인사 자주 받으니 미안하여 그만 어디로 삼삼속속 출렁임을 저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어 그런 고상한 인사 받을 자격이 없는 못난 선배에게는 황송하고 축스러워 안절부절이다. 2차 대전 패전 후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다시 일어난 전성기에 왜 무엇이 일본을 이렇게 세계 제1의 경제부흥국을 이루어 놓았는가?

정말꾼의 마음으로 처음 동경 나리타공항에 내려 리무진버스에 올랐을 때에 승차 안내와 버스 안 자리정돈을 하고 내리는 젊은 안내원 청년이 정중하게 바라서서 친절하게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절하여 인사하고 내리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름이 끼는 기억이 난다. 15도 45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고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청년을 보고 일본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낯 모르는 손님에게도 낮추어 허리를 굽혀 저렇게 절하여 인사하는 저 하리에서 세계경제대국이 나왔다고 진단을 내린 필자에게 선유도 총화회관 신학생들의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을 보고 으흠! 저 인사는 필자 같이 하나도 아무지게 제대로 해내지 못하여 비실비실한 선배는 저리 비켜서든지 아니면 단숨에 앉어치기 한판승으로 매어 체버리고 앞장 서서 나아가 복음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말겠다는 목사의 인사성이란 생각하니 선유도 버드나무 가지 같이 유연한 선유도총화회관 신학생들의 겸양의 인사성에 한 선배는 감을 먹었다는 뜻이다.

후진 양성 신학생은 선유도로, 선유도는 사나운 사람에게 일침을 주어 온유하게 만들어 놓는 때가 이다. 알고 보면 성경난안에서는 축복과 희망 아닌 것이 없다. 성경난안의 메인 무대인 정동통합교단에서는 말이다.

인권준중회
2010. 4. 30.

목자적 마음을 찾고 전심전력으로 실천하자

젊은 목회자 포럼 열려

"젊은 목회자 미래 사역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기 젊은 목회자 포럼이 지난달 26일 서대문교회에서 열렸다.



교강협 목회연구위원회와 청년연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영성훈련', '예배', '목양과 행정', '교육 목회', '사회봉사', '설교', '개혁과 전도', '소그룹 목회'를 주제로 4주간 매주 월요일 22조씩 총 8강좌로 진행됐다.

26일 열린 개최예배에서는 장봉생 목사(교강협 서기)의 사회, 김경원 목사(교강협 대표회장, 서현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요 21:15-17 말씀을 본론으로 한 설교에서 "목회자는 관리자가 아니라 목자적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목자적 마음을 찾아 실천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강에서는 황영준 목사(광주중산교회 원로목사)가 '찬송가로 불렀던 찬송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고백과 목회영성은 물론 그사대의 세상과 교회를 살펴보고, 이번 포럼은 세분화 된 주제와 목회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의 강의를 통해 미래의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도전과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